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중늙은이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젊지도 아니하고 아주 늙지도 아니한 사람. 또는 조금 늙은 사람.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8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1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중늙은이'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젊지도 아니하고 아주 늙지도 아니한 사람. 또는 조금 늙은 사람.

중늙은이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중늙은이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중늙은이 사전 표기 요약	—	—	—	—	—	●→
즁늙은이 문헌 수록 표기	—	—	—	—	—	●→
즁늘그니 문헌 수록 표기	—	—	—	—	—	●→
즁늘근이 문헌 수록 표기	—	—	—	—	—	●→
중늘근이 문헌 수록 표기	—	—	—	—	—	●→
중늘그니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중늙은이
  20세기현재
- 즁늙은이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6종

즁늘근이, 즁늙은이, 즁늘그니, 중늘근이, 중늙은이, 중늘그니

중늙은이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중늙은이’는 20세기부터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중늙은이’는 가운데를 뜻하는 한자 ‘中(중)’을 한글로 표기한 ‘중’과 ‘늙은이’가 결합한 것이다.

표기와 소리의 특징

‘즁늘근이’, ‘즁늘그니’, ‘중늘근이’, ‘중늘그니’, ‘즁늙은이’와 같은 표기도 나타난다. ‘즁늘근이’, ‘즁늘그니’, ‘즁늙은이’는 근대 국어 후기에 ‘중’과 ‘즁’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어 표기가 섞여 쓰인 것이다. ‘즁늘그니’, ‘중늘그니’의 ‘늘그니’는 ‘늙은이’를 연철 표기한 것이고, ‘즁늘근이’, ‘중늘근이’는 제3, 4음절을 분철 표기한 것이다.

문헌 속의 중늙은이

전체 용례 8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즁늙은이, 즁늘그니, 즁늘근이 외 3종 용례 8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즁늙은이, 즁늘그니, 즁늘근이, 중늘근이, 중늙은이, 중늘그니

출처 1908 치악산 상:168 용례 01

문헌 용례

언뜻 보면 절문 부인 갓흐나 자세 보면 얼골에 잔살이 만히 잡힌 즁늙은이라.

현대어 풀이

언뜻 보면 젊은 부인 같으나 자세히 보면 얼굴에 잔살이 많이 잡힌 중늙은이다.

출처 1914 추천명월 41 용례 02

문헌 용례

드러오라고 ᄒᆞ던 즁늘그니가 마루로 올나셔며 오냐 닉다 이리 드러온.

현대어 풀이

들어오라고 하던 중늙은이가 마루로 올라서며 오냐 나다 이리 들어와라.

출처 1914 추천명월 41 용례 03

문헌 용례

김슌이가 그럿탄 말를 듯고 나오며 좌우를 살펴보니 읏던 ᄉᆞ롬이 두어시나 문간에 섯고 안으로 즁늘근이 하나이 나오며

현대어 풀이

김순이가 그렇단 말을 듣고 나오며 좌우를 살펴보니 어떤 사람이 두엇이나 문간에 섰고 안으로 중늙은이 하나가 나오며

출처 20세기 변강쇠가판소리사설 586

용례 04

문헌 용례

기악고 타는 ᄉᆞ롬 빳빳 마른 중늘근이 피골이 샹련ᄒᆞᆫ듸 토질 먹은 기침 쇼릐 광쇠 치는 쇼릐 갓고.

현대어 풀이

개악고 타는 사람 빳빳 마른 중늙은이 피골이 상접한데 토질 먹은 기침 소리 광쇠 치는 소리 같고.

출처 1923 동아일보 5월 13일 4면

용례 05

문헌 용례

그 뒤를 이어서 애등 녀왕이 키가 작달막한 중늙은이 한 사람을 다리고 례절도 업시 막우 드러오면서.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3 동아일보 11월 15일 4면

용례 06

문헌 용례

두 눈가에 발서 줄이 젓고 머리터럭은 점점 성기어지며 희쑥희쑥하야 아즉 늙지도 안코 중늙은이도 아니 되엿것마는 청년다운 긔색은 도모지 나타나지 아니하엿슴으로 미리 늙어가는 자긔 신세를 한탄하게 되얏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8 동아일보 1월 12일 3면

용례 07

문헌 용례

나 가튼 쏙을 씨고 더구나 어린애까씨 다리고 가는 중늘근이를 더군다나 일어에도 야비한 "야지"를 한다는 것은 그 학생의 픔격을 의심한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8 조선일보 8월 10일 4면

용례 08

문헌 용례

그 녀자는 오십세쯤 되야 보이는 중늘그니로 몸집도 뚱뚱하고 키대도 크며.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중늙은이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중늙은이의 뜻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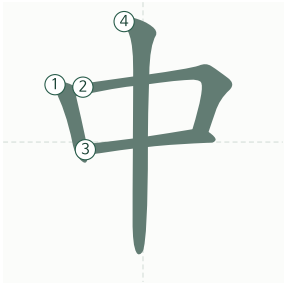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中 뜻·음 가운데 중

총 4획 · 부수 丨





hanja.wordrow.kr/한자/中/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 사전 상세 항목이 없는 본문 한자: 丨.